한국 실용음악과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김성배*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vianmusic@chungwoon.ac.kr

A Research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Piano Education at Applied Music Department in Korean Colleges

Sung-Bae Kim*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국내 실용음악과(Applied Music Departmen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 교육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1988년 서울예술대학에 실용음악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 현재 전국에는 50여개의 2, 4년제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대학에 신설될 추세이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과 비교했을 때 실용음악의 학문적 정립은 아직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국내 실용음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1:1로 이루어지는 개인레슨과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

실용음악과 입시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실기시험에서 피아노 전공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즈 피아노 연주이다. 그러므로 재즈가 지원자의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 음악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즈라는 음악이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부터 재즈 피아노를 배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악보가 있거나 직접 채보(transcription)한 입시곡을 단기간에 외어서 실기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결국 학생의 창의력이나 가능성보다는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입시현장에서의 실력으로 채점하게 되고, 입시 학원 등의 사교육은 오로지 실기시험에서 평가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게 된다. 그 결과 실기시험을 위한 특정 레퍼토리와 한 곡에서도 1~2분 정도의 특정부분을 반복 연습하는 그야말로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고, 계속된 반복연습으로 익숙해진 한 두곡을 제외하고는 음악적 기초조차 익히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교육의 낭비가 생기게 된다."[2)]

---

1)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학교가 초견(sight-reading) 능력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 평가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음악성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여겨진다. 화성, 리듬을 비롯한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2) 이정선,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 대중 음악 보컬 반주에 집중하는 경향

일반적으로 실용음악과의 기악 전공생은 테크닉과 독창성을 덜 요구하는 대중 음악(popular music) 보컬 반주(accompaniment)에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이는 국내 실용음악과 대부분이 보컬 전공생이 기악 전공생보다 많기 때문이다. 전공생들 다수가 상대적으로 피아노(혹은 건반)의 역할이 작은 락 음악(rock music)을 선호할 경우, 앙상블을 통해 피아노 테크닉을 발전시킬 기회는 미약하다. 물론 대중 음악 보컬 반주도 실용음악교육의 일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4년의 대학 교육 기간동안 개인 레슨과 앙상블 수업에서 보컬 반주만을 교육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또한 대중음악 반주에만 집중할 경우 클래식과 재즈를 기반으로 한 국내 실용음악과 전공 이론 과목들에 흥미를 잃게 되기 쉬운 점이 있다.

1.3 How to Play 교육의 부족

실용음악과에서 이루어지는 피아노 교육의 대부분이 '무엇을 연주할 것인가'(what to play)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는 연주의 내용적인 측면을 뜻하는 것으로 멜로디(melody)와 화성(harmony) 교육이 대표적이다. 반면 피아노라는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how to play)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이는 악기 연주에서 매우 중요한 톤(tone)이라든지 테크닉(technique) 등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피아노 전공생 대부분이 이 문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실용음악과에 입학하고, 학부 과정에서도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음악적인 지식은 쌓을지 모르나 무대 위에서 자신감 없는 연주를 초래하고 만다.

1.4 재즈에 편중된 교수진

버클리 음악대학(Berklee College of Music)을 필두로 외국에서 재즈 피아노를 수학한 피아니스트들이 국내 초창기 실용음악과 피아노 교수진의 주를 이루었다. 이후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재즈를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 외국 학력으로 대학에 출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내 실용음악과 개인 레슨에서 재즈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기 원하는 장르(genre)는 재즈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재즈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밥(be-bop)이라든지 모던 재즈(modern jazz)에서 요구되는 확장된(extended) 즉흥연주(improvisation)보다는, 이지리스닝(easy-listening) 재즈나 블루지한 펑크(funk) 솔로, 대중 음악에서 깔끔한 솔로를 연주하는 것 정도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재즈는 전세계적으로 순수 예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학문적으로도 체계가 정립된 음악이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음악 대학, 대학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학문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난해한 음악일 뿐만 아니라 비대중적 장르이다 보니 졸업 후의 음악 현실이 열악하다. 전공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2. 본론

2.1 다양한 주제의 피아노 강의 개설과 컨셉의 재확립

입시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오늘날 입시를 대비한 실용 음악 학원의 단기성 교육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국에 7개 가량의 고등학교 실용음악과[3]가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보컬 전공생 혹은 다른 악기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부전공 레슨 혹은 클래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아노 전공 신입생에게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강의 개설이 필요하다.[4]

또한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수학하기 위한 컨셉의 재확립이 요구된다. 입시 위주의 음악 교육을 받고 입학한 신입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입시곡들 외에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음악과 다양한 음악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음악이 아닌 예술가로서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교육해야 한다.

2.2 연주음악

재즈를 비롯한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 음악(instrumental music)을 연구함으로써 악기에 대한

3) 현재 김천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컴퓨터실용음악과, 아현산업정보학교 실용음악과,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실용음악과, 리라컴퓨터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서울실용음악학교 등이 있다. 앞으로 더 생겨날 예정이다.

4) Reading 1~3, Comping 1~3, Pop, Funk/Fusion, Latin, Roots/Rock 31개의 피아노 관련 랩(lab) 수업이 있다. 또한 200여개의 앙상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숙련도(skillfulness)를 높이고 많은 음악적인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연주 음악을 소개하고 연주해 보도록 독려하고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기악 전공생들의 수준이 향상되면 보컬 전공생들도 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한편 보컬 음악이 다양성을 확보한다면 기악 전공생도 천편일률적인 대중 음악 보컬 반주를 벗어나 창의적인 반주를 시도할 수 있다. 재즈 보컬 반주라든지 재즈의 영향이 짙은 대중음악, 피아노의 역할이 강조된 음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클래식과 재즈를 기반으로 한 실용음악과의 이론 수업과 대중음악 작곡이나 연주와 연계되는 부분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론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5]

2.3. 클래식 피아노 교육의 병행

클래식 피아노 교육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측면에서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실용음악분야의 피아노 혹은 건반 연주자들은 많은 경우, 클래식 피아노를 폭넓게 연구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실용음악과에서의 클래식 피아노 교육을 통해 유년 시절부터 오랜 기간 훈련해 온 클래식 전공자들만큼의 숙련도에 다다르기는 힘들다. 그러나 클래식 피아노와 동일하게 실용음악 피아노 연주에서도 필수적인, 테크닉 -음색, 음량, 음질, 프레이즈의 유연한 표현 등- 을 습득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스케일(scale), 아르페지오(arpeggio) 연습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클래식 피아노 작품들을 연주함으로써 테크닉적으로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악기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피아노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레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개의 경우 재즈 피아노 교수는 클래식 피아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클래식 피아노까지 교육한다면 레슨의 집중도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교수를 채용하여 최소 2학기 정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미 버클리 음악대학과 같이 매학기 이루어지는 실기 평가에 스케일, 아르페지오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다.[6] 과거 이 음대는 피아노 전공생이라면 클래식과 재즈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커리큘럼을 시행, 실효를 거둔 바 있다.[7] 맨하탄 음악대학(Manhattan School of Music), 줄리어드 음악대학(The Juilliard School), 뉴잉글랜드 음악원(New England Conservatory),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음악원(Amsterdam Conservatory) 등 클래식 음악대학 내에 재즈 전공 학과가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유익을 얻고 있다. 분명 클래식 교육과 차별화 되어야 하지만 실용음악 피아노 교육에 클래식 피아노 교육이 어느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2.4. 다양한 교수진의 확보와 맞춤형 교육

실용음악과의 재즈 피아노 교수진들은 대부분 전문 연주자(professional musician)이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수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란 어렵다. 다양한 장르의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전공 지도 교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전공생이 재즈 피아노 배우기를 원치 않을 경우 교수는 재즈 교육을 강요하기 보다 그 학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연구해야 한다. 입시 실기 시험 때에는 엇비슷한 것 같으나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개인별 실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합격자들의 수준을 정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실기 시험을 치르고 그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8]

---

5) 물론 대중음악 작곡이나 연주에 필요한 정도의 이론 교육만 한다면 수준 저하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화성악 수업을 예로 들면 이론에 깊이 들어가면 재즈 화성악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6) 버클리 음악대학의 경우 능률시험(proficiency)이라는 이름으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재즈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코드 진행 연주를 매학기 평가한다. Level 1부터 Level 7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7) 최근 십수년 사이 버클리 음악대학의 클래식 음악 교육은 약화되고 있다. 버클리 음악대학 강좌 목록참조: www.berklee.edu/courses/deptlist.php?field=name&oper=bw&search_string=&searchby=Find+Course

8) 버클리 음악 대학은 전공필수 과목, 랩 수업, 앙상블 수업 등이 모두 레벨이 나누어져 있다. 철저히 수준차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결론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좋아서 시작하고 좋아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음악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대학에서 원치 않았던 재즈 피아노 교육으로 인해 연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좋아하는 음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흥미를 가지고 할 때에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도제식(apprentice) 교육이 아닌, 피아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과 한국 실용음악과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이정선,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Gyorgy Sandor, 'On Piano Playing', 음악춘추사, 2001

[3] Hal Crook, 'How to Improvise', Advance Music, 1991

[4] 버클리 음악 대학 공식 홈페이지: www.berklee.edu